

복원중인 남원읍성, 옛 경관도 복원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선정 남원시, 역사 회복 방안 모색 탐방루트 개선·거점시설 확충 등



남원시가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2024년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복원정비가 진행 중인 남원읍성. <남원시 제공>

남원시가 문화재청의 신규사업인 '2024년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남원시는 문화재청의 이번 공모에 남원의 남원읍성이 대상으로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포함 총 2억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경관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관개선 사업은 국가유산의 체제 전환에 맞춰 주민과의 공존·상생을 통한 국가유산의 지속가능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가유산 주변 건축행위 제한 등의 주민규제 일련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유산 보호와 삶이 공존하는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공모 선정은 남원시의 남원읍성(사적)을 포함해 나누시 나누읍성(사적), 완도군 완도 청해진유적(사적), 태안군 태안 안흥진성(사적), 예천군 예천 회룡포(명승) 등 총 5개소다.

시는 이번 공모선정으로 남원읍성이 일제 강점기 전라선 개설 등으로 훼손됐지만 통일신라시대 남원소경과 조선시대 읍성의 격자형의 공간구성 특성 등을 활용한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역사성 회복 방안 모색에 나선다.

특히 정유재란과 남원성전투 관련 유지의 역사

성 회복과 역사문화공간을 연계한 탐방루트 및 보행환경 개선과 방문객 지원 거점시설 등의 확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읍성지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 중인 시는 복원 복원을 위한 고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남원읍성과 복원지를 비롯해 해자와 양대장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잔존유구가 확인됐고 보존상태도 양호해 남원읍성 복원정비 설계 역시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북도에서 지리적 요충지로 유형·무형의 가장 많은 지정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남원시가 2024년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에 선정돼 매우 기쁘다"면서 "이번 사업 추진에 따라 남원읍성과 흥분문화가 어우러진 남원성 역사마을 만들기를 통해 향후 남원시의 국가유산 보호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예산 절약 입증하고 성과금 받으세요

남원시, 이달까지 신청자 접수... 지난해 1년간 우수 사례

남원시가 예산 절약 및 수입 증대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자 '예산성과급 지급 신청'을 받는다. 기간은 30일까지다.

'예산성과급'은 예산낭비 신고 등을 통해 우수 사례로 채택되거나 예산의 집행 방법, 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 기간은 2023년 회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다.

희망자는 예산 절약, 창의성, 노력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남원시청 예산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급 타당성 등을 자체적으로 사전 검토하고 예산성과급 심사위원회에서는 기여자의 창의성, 노력 정도, 재정 개선 효과 및 파급 효과 등을 추가 심사한다.

성과급 지급 대상자는 5월31일 발표된다. 1인당 최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성과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긴축재정 기조에서 예산 절감이 중요한 만큼 예산성과급 제도를 적극 활용돼 다양한 사례 발굴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주인 구하고 숨진 개 실화 현장에 '의오상'



정읍시, 구랑마을서 제막식

정읍시가 주인을 구하고 자신을 희생한 의로운 개의 실화를 기리기 위한 '의오(義狗)상'을 건립했다. 정읍시는 지난 13일 오전 9시 구랑마을에서 박일·서향경 정읍시의회의원과, 남영희 동장을 비롯한 마을주민이 참가한 가운데 의오상 제막식(사신)을 가졌다고 밝혔다.

정읍현지(井邑縣誌)에 따르면 "옛날 구랑마을에 사는 박춘보라는 사람이 개(부끄러)를 매우 사랑해 언제나 함께했는데 어느날 정읍시장에서 술을 먹고 취해 돌아오는 길에 해질무렵 산기슭에 누어 잠이들었는데 갑자기 산불이 번져왔다.

주인을 지켜보고있던 개는 개울가로 내려가 몸과 꼬리를 물에 적시어 불길을 막고 개는 기진맥진해 죽고 말았다. 밤이 깊어서야 깨어난 주인은 개가 자기를 구하고 개가 죽은것을 깨닫고 애통한 나머지 현장에 석비(石碑)를 세워 그 영(靈)을 위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구랑마을 주민 양인권씨는 "석비가 마을입구에 오래도록 있었는데 도로 공사를 하면서 묻혀져 없어졌다가 이를 안타까워하던 자선사업가가 조그만 의오비를 세워 보존해 왔다"며 "시에서 주민들의 뜻을 모아 실화의 현장에 새로운 의오상을 건립하니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쌍화차 재료 '숙지황' 20% 할인

다음달 16일까지

정읍시는 농특산물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 16일까지 한 달간 정읍 지황(숙지황) 판매소비촉진 프로모션(특별 할인)을 진행한다.

이 기간 정읍 쌍화차집 등 숙지황을 사용하는 경영체는 숙지황 20kg 단위당 20%를 지류 은누리상 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영체는 질 좋은 숙지황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소비자는 명품 정읍 지황으로 달인 쌍화차

를 맛볼 수 있어 정읍 특산물인 지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쌍화차 주재료인 '지황'의 주산지 정읍을 홍보하고, 정읍 쌍화차 거리 활성화를 위해 기획했다. 현재 정읍에는 약 50개소의 쌍화차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쌍화차 거리를 방문, 정읍만의 전통적인 향과 추억을 맛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국가 대표 '고창 황토배기 멜론·청보리밭 축제'

올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선정

고창의 '청보리밭축제'와 '황토배기 멜론'이 올해의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선정됐다.

고창군은 17일 열린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시상식에서 청보리밭축제가 3년 연속 생태관광축제 부문에서, 황토배기 멜론이 5년 연속 농산물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고창황토배기 멜론'은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 서해안 해풍, 높은 일교차 등 농산물 재배의 최적

환경에서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농가들의 땀과 열정이 더해진 산물이다.

군은 고품질 멜론 생산을 위해 새로운 재배기술을 도입하고 생산부터 출하까지 일괄관리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았다. 그 결과 싱가포르, 홍콩 등지에 수출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최고 품질의 멜론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올해로 21회를 맞는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조룩물결 음악노트'란 주제로 오는 20일 개막해 5월12일까지 23일간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장 100

만㎡ 보리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축제 기간 개막식 공연을 비롯해 보리밭 사잇길 버스킹, 관광객 참여 공연 등 다채로운 음악 관련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대상 수상의 영광을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멜론 농가에게 돌린다"며 "소비자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농가소득 증진의 효과 증폭이 될 수 있도록 고창 멜론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신축 '고창 통합보훈회관' 설계 착수

43억원 투입 8월 착공

고창군의 '통합보훈회관 신축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고창군은 최근 김철태 부군수와 관계 부서장, 건축분야 공무원을 비롯해 보훈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보훈회관 건립 설계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국비 5억원을 포함 총 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고창읍 교촌리 일원 887㎡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통합보훈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내부에는 사무실과 다목적실, 휴게실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군은 보고회에서 제시된 보훈단체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오는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뒤 8월 착공할 계획이다.

통합보훈회관 신축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협조하고 노후화된 기존 보훈회관을 이전 신축해 산재 돼 있는 보훈단체의 운영을 통합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업인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청년애 희망을, 노년애 행복을, 농업애 미래를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연금사업

은퇴이양 직불사업

과원규모화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은행은 농지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농지은행'을 검색하세요

검색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매, 임대를 통한 영농규모확대 지원
- 고령은퇴, 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임대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농지우선지원

- 청년후계농의 빠른 영농정착을 위해 우선 지원
- 생애 첫 농지구입자금 저리 지원, 5~10년 장기임대

* 과원규모화사업

- 고령·은퇴농, 비농업인 등의 과원을 매입 또는 임차해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등에게 매도, 임대

* 농지연금사업

-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원
- 배우자 승계가능, 가입비 없고 재산세 감면 혜택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 및 환매보장 등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매도, 매도조건부 임대 시 매월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지급

* 농지임대수탁사업

-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5년이상 장기임대

